

전북 3분기 소비자물가 2.0% 상승

식료품·외식비 오름세, 반면 통신비 큰 폭 하락

전북지역의 2025년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2.0% 상승하며 안정적인 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이번 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8.7로 집계됐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음식 및 숙박 부분의 물가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견인한 반면, 통신비는 큰 폭으로 하락해 상승률을 다소 낮추는 역할을 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부문에서 나타났다. 전년 동분기 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식품이 4.7% 축산물이 6.0%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결과다.

다.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1.1%)를 기록했으나, 수산물과 축산물 가격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음식 및 숙박 부문도 3.0% 상승해 외식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도 2.9%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분기 대비 2.0% 상승하는 등 가정 내 필수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에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반면 통신비는 전년 동분기 대비 4.6% 하락했다. 스마트폰 요금제 다양화와 인터넷 서비스 경쟁 심화가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비 하락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밖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부문은 1.1%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은 0.8% 하락했다. 생활필수품 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소폭 오름세(0.9%)를 기록했으나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크게 크지 않았다.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 물가가 2.1% 상승한 가운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1.8%를 기록했다. 특히 상품 부문에서는 가공식품, 축산물 등 생필품 중심의 가격 상승이 주도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가격도 2.9% 상승했다. 다만 공공서비스는 -0.8% 하락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켰다. 2023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전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3.2%에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24년에는 2%대 초중반을 유지하다가 2025년 3분기 2.0%로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및 외식비 상승은 서민 가계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수급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 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물가 상승 양상과 부합한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수요 압력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필수 식품과 외식 부문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상근 기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중국 해외 바이어 초청 실무협의회

농협사료 군산바이오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사료 군산바이오는 최근, 중국 인텍(Intec)사의 David Hwang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를 초청해 실무협의회를 열고 양사 간 협력 확대 방안과 신규 제품 등록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국 내 기존 수출 제품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등록될 예정인 Nonglac-F(xp), Nonglac-S(xp) 제품의 차별화된 군주 특성과 향후 마케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바이오가 신규 등록을 추진하는 맞춤형 생균제는 가축 장내환경을 개선해 소화 촉진, 천연 항생물질 생성,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군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반 생균제 대비 생균 함유량이 10배 이상 높아,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평가된다. 군산바이오와 인텍사는 그동안에도 성분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 검토부터 등록 군주 변경 논의까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지속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민석 군산바이오 장장은 "허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11년 동안 변함없이 군산바이오 생균제를 신뢰하고 구매해 준 인텍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피지컬AI 반도체 시대’ 지역 제조혁신 청사진 제시

전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전북 제조업 대응 전략 제안

전북지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피지컬AI 반도체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4일 본부동 대강당에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기술세미나 ‘피지컬AI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라’를 개최해 지역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반도체·AI·제조 분야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질서 재편 속에서 전북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기를 더했다. 강연에 나선 가천대 김용석 석좌교수는 GPU·HBM 중심의 반도체 수요 폭증과 미국의 FDPR 규제, 중국의 국산화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중국 SMIC의 7nm 공정, Horizon Robotics의 온디바이스 AI 칩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추격 속도는 단순한 추경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이며, 제조

업 중심 지역일수록 기술전환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 분야에 집중되었다면, 피지컬AI는 공정·설비·로봇 등 실제 산업 현장의 물리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판단하고 실행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CES 2025에서 제시된 'From Generative AI to Physical AI' 흐름을 짚으며, 전 산업 분야에서 온디바이스 AI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칩 성능이 아니라 컴파일러와 BSR, 레퍼런스보드 등 통합 소프트웨어 스택 확보 여부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비수도권상협,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 개최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의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비수도권 4개 권역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주최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기업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에 비수도권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최재호 경

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국회의원 박희승, 구자근 허성무, 김대식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제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전주·익산 군산 전북 서남 김제상의 임직원들도 함께해 비수도권 경제계의 목소리를 결집했다. 토론회는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되었다. /오상근 기자

‘밥 한 그릇’ 이 전하는 생명과 연대

국립농업박물관, WFP와 특별 전시 개최

‘밥 한 그릇’에 담긴 생명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한 전시가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다. 국립축산식품부와 국립농업박물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우리나라 식량원조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체험 행사 ‘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잇다’를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5 개발협력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후 심각한 식량난을 겪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식량을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한다. 전시장은 ‘밥 한 그릇’이 지닌 생명의 의미와 국제적 연대의 가치를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구역과 체험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토리구역에서는 1950~80년대 WFP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던 시기부터 1970년대 혼식·분식 정책, 농업기반 확충과

쌀 자급 달성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변화를 담아 우리 밥상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WFP의 식량지원 물품과 한국의 공여 사례를 전시해 국제식량원조 현장을 생생감 있게 전달한다. 체험구역에서는 쌀포대 디자인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대한 응원 메시지 작성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더불어 11월 28일과 12월 3일에는 ODA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강연이 열려 농업·식량 분야의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하반기 국립농업박물관이 선보인 ‘탄수화물 연대기’ 전시와 함께 운영되며, 밀·보리·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역사부터 식량원조가 지닌 국제적 의미까지 한 자리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오상근기자

중기 현장 애로 청취·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안호영 국회의원 초청... 전북 중소기업인 간담회 열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1일 본부 회의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을 초청해 전북 중소기업계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진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 이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병모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의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참석,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병진 회장은 전북경제 활성화와 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확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 설치 지원 △전북형 중소기업 AI 확산 패키지 도입 △인재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 마련 △상권활성화기금 설립 등 총 18개 정책 과제를 안 의원에게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의 고충도 이어졌다. 남승우 전

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규제로 전북 지역에서 골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건설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고, 잦은 환경유해 검사로 인해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김병진 회장은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 일자리의 95%를 차지하는 핵심 주체이며,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뼈대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인력난 규제, 관료, 에너지 비용 등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